



발 간 등 록 번 호

11-1240245-000014-10

한국의 사회동향

Korean Social Trends 2021 **2021**
<http://sri.kostat.go.kr>



통계청

통계개발원

코로나19와 아동 돌봄

최윤경 (육아정책연구소)

- 코로나19 이후 돌봄공백의 비율이 2020년 연간 35% 내외로 일정 수준을 보여 돌봄 취약층이 드러났고, 자녀돌봄 서비스 이용에 변화가 있는 가구는 약 60%를 차지하였다.
- 휴원·휴업 동안 개별가정의 자녀돌봄은 변화 없음에서부터 다양한 양육방식에 이르기까지 변화의 폭이 크고, 자녀연령과 가구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직접돌봄이 우세한 가운데, 조부모/친인척의 도움과 긴급돌봄 이용이 주요한 양육체계로 작동하였다.
- 직장 내 자녀돌봄지원제도 중에서 유급휴가 사용률이 높게 나타나고 재택근무, 유연근무, 무급휴가 사용 등이 많았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어린이집 긴급보육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일-돌봄 균형을 지원하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 코로나19는 여러 차원에서 가족의 변화를 초래하였는데, 가구소득 및 부/모의 근로소득과 근로 시간 감소, 시간사용의 변화가 있었으며, 가족 관계에는 긍정과 부정의 경험이 공존하는 가운데 긍정적인 영향이 좀 더 많았다.
- 아동돌봄가구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경험하는 어려움은 돌봄공백에 국한되지 않으며, 고용·노동 및 소득의 변화와 사회활동의 제약, 불안/우울 등 정신건강상의 어려움, 직장생활유지의 어려움을 함께 경험하고 있다.

2020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은 2021년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으며, 누적된 약 2년에

걸친 영향은 전 세계 아동에 대한 교육과 돌봄, 육아 분야에 커다란 지형의 변화를 가져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4차례의 대유행을 경험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통해 초·중·고등학교와 돌봄교실, 유치원·어린이집과 도서관 등의 공적 교육·돌봄 체계는 5차례 이상의 휴원·휴업·휴관 조치와 온라인 원격수업의 변화로 대응하였다.

이로써 아동에 대한 돌봄과 교육은 개별 가정과 부모의 역할로 회귀하였으며, 그 동안 추진해 온 돌봄의 사회화와 공공성 강화는 교육과 돌봄의 개별화와 사적 영역에 의존도 증가로 전환되었다. 이로 인한 격차의 심화와 계층화가 진전되었으며, 일부 아동의 경우 성장·발달의 지연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코로나19 전후로 아동돌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의 자녀(막내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만 0-8세)를 둔 주 양육자를 대상으로 「코로나 대응 관련 부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조사는 2020년 3월 25일-3월 27일, 2차 조사는 2020년 7월 8일-7월 10일에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코로나19의 영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대구, 경산, 봉화, 청도)의 자녀양육가구를 과대표 집하였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주 양육자는 1차 조사 564명이었으며, 맞벌이가구(43.8%), 외벌



이가구(48.2%), 비경제활동가구(8.0%)로 구성되었다. 2차 조사에는 1차 조사 응답자의 61.9%인 349명이 참여하였다.

휴원·휴업 기간 돌봄공백 현황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팬데믹이 선언된 이후, 아동 관련 공적 돌봄체계는 작동을 멈췄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주요 육아지원 인프라의 휴원·휴업 조치가 내려졌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엄중하게 적용되었다. 휴원·휴업 기간 동안 ‘돌봄공백(낮 시간 자녀를 돌볼 사람/서비스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음)’을 겪은 가구는 <표 II-4>에서 2020년 3월 36.2%, 2020년 7월 37.5%로 나타났다. 자녀돌봄의 공백을 경험한 비율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완화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고 2020년 연중 일정 수준을 보였다.

<표 II-4> 휴원·휴업 기간 돌봄공백, 2020

시점	%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어느 정도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계
2020.3	31.6	32.3	26.6	9.6	100.0
2020.7	28.9	33.5	31.2	6.3	100.0

주: 1) 막내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만 0-8세 자녀를 둔 주 양육자를 대상으로 하며, 조사기간은 1차 2020년 3월 25일-3월 27일, 2차 2020년 7월 8일-7월 10일임.

2) 1차 조사는 '2월 중순 이후', 2차 조사는 '6월 한 달간' 코로나 감염 위기 상황으로 이전에 없던 돌봄공백이 발생하였는지 질문하였음.

출처: 육아정책연구소, 「코로나19 육아분야 대응체계 점검 및 돌봄공백 지원 방안 연구」, 2020.

돌봄공백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코로나19로 인해 가구소득의 변화를 경험한 가구, 특별재난지역(대구, 청도, 봉화, 의성), 취약가구, 초등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많아 돌봄공백을 경험하는 돌봄 취약층의 특성을 보여준다. 특히 맞벌이가구의 돌봄공백이 외벌이가구에 비해 큰 가운데,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외벌이가구의 돌봄공백도 약 30%로 증가했다.

휴원·휴업 기간 아동 돌봄의 변화

또한 코로나19 상황 전후로 자녀 돌봄을 위한 서비스 이용에 얼마나 변화가 있는지 파악하였다. 자녀돌봄 서비스 이용에 변화가 있는 경우는 59.0%, 없는 경우는 41.0%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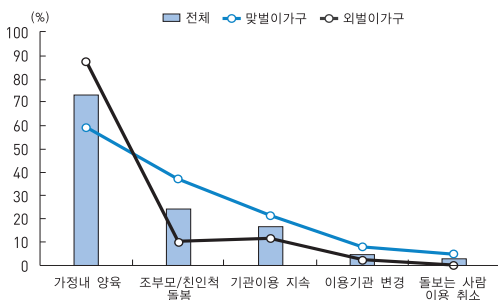
팬데믹 초기의 자녀돌봄은 [그림 II-13]에서 볼 수 있듯이 ‘기관을 다니지 않고 주로 가정내 양육을 한다는 응답’이 73.3%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조부모/친인척에게 도움을 받는다’ 24.0%, ‘자녀가 다니던 기관 이용을 지속함’ 16.8%, ‘기존에 이용하던 곳을 그만두고 다른 곳을 이용’ 4.8%, ‘돌보는 사람 이용을 그만둠’ 2.7%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부모가 직접돌봄이 우세한 가운데 맞벌이가구의 경우 조부모/친인척 돌봄의 비중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한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 대상 「어린이집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등·하원 전·후 개인양육지원 이용에 대해 조사한 결과, <표 II-5>

에서 보듯이 어린이집만 이용하는 경우는 2016년 70.2%에서 2019년 81.3%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지만 2020년에는 50% 수준으로 급감하였다. 반면 혈연가족의 도움을 받는다는 비율이 15.5%에서 43.8%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비혈연 개

인양육 서비스 이용은 2016년 2.0%, 2019년 2.7%에서 2020년 4.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세를 보이던 어린이집 이용률이 급격히 감소한 것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어린이집 휴원 때문으로 보인다.

[그림 II-13] 팬데믹 초기 아동 돌봄 변화, 2020.3



주: 1) 막내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만 0-8세 자녀를 둔 주 양육자를 대상으로 함.
 2) 아동돌봄 서비스 이용에 변화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 내용에 대해 중복응답한 것이므로 하위 유형 비율의 합이 100%를 초과함.
 출처: 육아정책연구소, "코로나19 육아분야 대응체계 점검: 어린이집유치원 휴원 장기화에 따른 자녀돌봄 현황 및 향후 과제", 「육아정책 Brief 81호」, 2020.

아동 연령별 돌봄서비스 이용 현황

코로나19 초반에는 돌봄서비스 이용의 제한과 가정내 돌봄으로 전환되었으나, 공적 돌봄체계의 휴원·휴업 및 긴급돌봄 운영이 장기화되면서 긴급돌봄 이용의 증가와 기타 서비스 및 사교육/민간돌봄 서비스 이용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연령 및 부모 맞벌이 여부에 따라 돌봄 서비스 이용에 차이를 보였다.

[그림 II-14]의 영아(만 0-2세) 돌봄의 경우에는 팬데믹 전후 서비스 이용의 변화 폭이 상대적으로 적은 가운데, 어린이집 이용과 사설 놀이공간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이용이 전반적으로 줄었다. 외벌이의 경우 부모의 직접 돌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맞벌이의 경우 조부모/친인척 도움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유아(만 3-5세) 돌봄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공공기관과 사설 놀이공간의 이용이 모두 큰 폭으로 줄어들었으며, 부모의 직접돌봄 및 조부모/친인척의 돌봄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영아돌봄과 마찬가지로 유아돌봄도 외벌이의 경우 부모의 직접돌봄이, 맞벌이의 경우 조부모/친인척 도움

[표 II-5] 어린이집 등·하원 전후 돌봄자, 2016-202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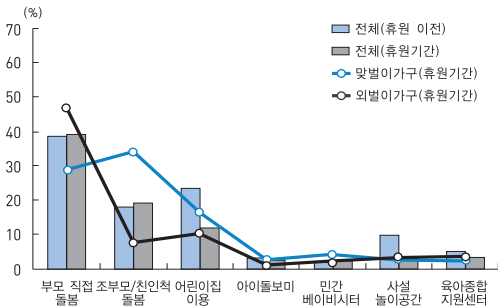
	혈연인	비혈연인	혈연/비혈연인 모두	없음 (어린이집만 이용)	계
2016	27.7	2.0	0.2	70.2	100.0
2017	25.9	2.0	0.2	72.0	100.0
2019	15.5	2.7	0.4	81.3	100.0
2020	43.8	4.5	1.3	50.3	100.0
0세	48.5	6.4	0.0	45.1	100.0
1세	46.5	3.0	1.2	49.4	100.0
2세	36.3	4.7	1.6	57.3	100.0
3세	48.7	4.8	1.6	44.8	100.0
4세	47.1	3.7	0.7	48.6	100.0
5세	42.2	6.0	2.0	49.9	100.0

출처: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어린이집 이용자 만족도 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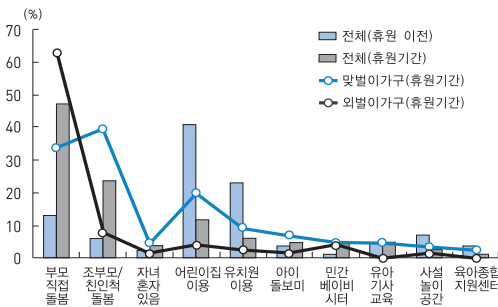
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유치원·어린이집의 긴급돌봄 이용이 10% 이상 일정 비율을 유지하였다(그림 II-15).

[그림 II-14] 팬데믹 초기 영아 돌봄, 2020.3



주: 1) 막내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만 0-2세 영아에 대한 응답임.
 2) 해당자녀가 이용한 서비스 항목에 대해 중복응답한 것이므로 하위 유형 비율의 합이 100%를 초과함.
 출처: 육아정책연구소, "코로나19 육아분야 대응체계 점검: 어린이집유치원 휴원 장기화에 따른 자녀돌봄 현황 및 향후 과제", 「육아정책 Brief 81호」,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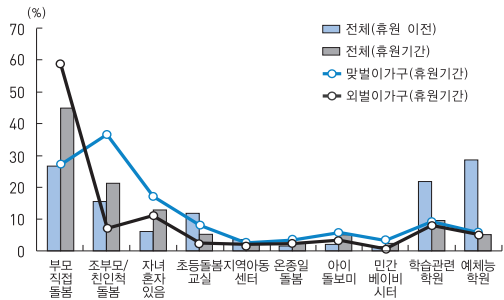
[그림 II-15] 팬데믹 초기 유아 돌봄, 2020.3



주: 1) 막내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만 3-5세 유아에 대한 응답임.
 2) 해당자녀가 이용한 서비스 항목에 대해 중복응답한 것이므로 하위 유형 비율의 합이 100%를 초과함.
 출처: 육아정책연구소, "코로나19 육아분야 대응체계 점검: 어린이집유치원 휴원 장기화에 따른 자녀돌봄 현황 및 향후 과제", 「육아정책 Brief 81호」, 2020.

초등 저학년 아동(만 6-8세) 돌봄은 초등 돌봄교실과 학습 및 예체능 학원 이용이 큰 폭으로 줄었고, 지역아동센터 이용도 다소 감소하였다. 다른 연령대의 아동과 마찬가지로 부모의 직접 돌봄과 조부모/친인척 도움이 증가하였고, 자녀 혼자 있는 경우가 12.8%로 6.6%p 증가하였다. 외벌이의 경우 부모의 직접 돌봄이, 맞벌이의 경우 조부모/친인척 도움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그림 II-16).

[그림 II-16] 팬데믹 초기 초등 저학년 아동 돌봄, 2020.3



주: 1) 막내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만 6-8세 초등학교 저학년에 대한 응답임.
 2) 해당자녀가 이용한 서비스 항목에 대해 중복응답한 것이므로 하위 유형 비율의 합이 100%를 초과함.
 출처: 육아정책연구소, "코로나19 육아분야 대응체계 점검: 어린이집유치원 휴원 장기화에 따른 자녀돌봄 현황 및 향후 과제", 「육아정책 Brief 81호」, 2020.

전반적으로 코로나19 초기에는 어린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직접돌봄이 우세한 가운데, 조부모/친인척의 도움과 긴급돌봄의 이용이 주요한 양육지원체제로 작동하였다. 취학 전 영유아 돌봄의 경우 어린이집·유치원의 긴급돌봄 이용률이 초등 저학년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영유아의

경우 3월 말 조사 기준 맞벌이가구의 약 25%, 외벌이가구의 약 9% 이상이 긴급돌봄을 이용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후 어린이집·유치원의 긴급돌봄 이용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5월 말에는 전국 평균 70%를 상회하게 되었다.

조부모/친인척 돌봄이 코로나19로 인한 감염위험 상황에서 영유아 자녀 돌봄에 중요한 지원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가구의 경우 37.1%, 외벌이가구의 경우 8.0%로, 맞벌이가구에게 조부모/친인척은 평상시뿐만 아니라 코로나19와 같은 돌봄위기 상황에서도 가장 중요한 자원이다.

또한 공적 돌봄 및 사적 돌봄 서비스의 전반적인 이용 감소 하에서도 아동의 연령에 따라 개별 가정에서의 돌봄인력(아이돌보미, 민간베이비시터)에 대한 수요가 완만히 증가하였으며, 기타 서비스의 이용과 초등자녀의 사교육 이용이 팬데믹 초기에는 10% 이상의 일정 비율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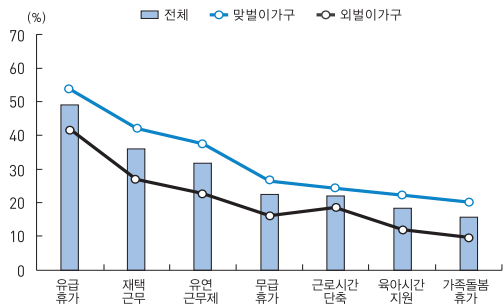
이후 팬데믹이 장기화되고 초등학교 휴업과 온라인수업 전환이 반복되면서 가구의 특성에 따라 학업결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교육/민간 영역 의존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서비스 이용과 접근성의 차이로 휴원·휴업 기간 아동의 학습 격차가 나타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직장 내 자녀돌봄지원제도 이용

코로나19로 인한 휴원·휴업 기간 동안 자녀돌봄을 위해 제공된 직장 내 지원제도를 이용한 경

험은 [그림 II-17]에서와 같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응답자 본인의 직장을 기준으로 유급휴가 49.2%, 재택근무 36.1%, 유연근무제 31.9%, 무급휴가 22.4%, 근로시간 단축 21.9%, 육아시간 지원 18.3%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0년에 신규 도입된 가족돌봄휴가는 코로나19 초기에는 응답가구의 15.8%가 이용하였다. 외벌이가구보다는 맞벌이가구에서 직장 내 자녀돌봄지원제도를 이용한 비율이 모두 높았다. 시간 지원의 경우 외벌이가구의 이용률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나타났다.

[그림 II-17] 맞벌이가구 여부별 직장 내 자녀돌봄지원제도 이용률, 2020.3



주: 1) 막내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만 0-8세 자녀를 둔 주 양육자를 대상으로 함.
 2) 응답자 본인의 직장을 기준으로 해당 제도를 '소극적으로 활용', '충분히 활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의 합임.
 출처: 육아정책연구소, "코로나19 육아분야 대응체계 점검: 어린이집유치원 휴원 장기화에 따른 자녀돌봄 현황 및 향후 과제", 「육아정책 Brief 81호」, 2020.

직장 내 자녀돌봄 지원제도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유급휴가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부모보다는 모의 이용률이 더 높았다. <표 II-6>의 지원제도 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유급휴가, 무급휴가,



유연근무제는 부와 모의 이용률에는 큰 차이가 없다. 반면 재택근무, 근로시간 단축, 육아시간 지원, 가족돌봄휴가는 부모보다 모의 이용률이 더 높아 자녀돌봄지원제도의 이용에 있어서 성별 차이를 보였다. 평소에도 자녀돌봄을 주로 모가 담당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국면에서도 자녀돌봄을 주로 담당하는 모가 지원제도를 더 많이 이용한 결과이다. 이런 가운데 자녀돌봄지원제도를 이용한 부의 비율이 약 15~50%를 차지한 것은 의미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표 II-6〉 성별 직장 내 자녀돌봄지원제도 이용률, 2020.3 (%)

	전체	부	모
유급휴가	49.2	49.5	48.3
재택근무	36.1	33.4	42.7
유연근무제	31.9	31.5	33.0
무급휴가	22.4	22.2	22.9
근로시간 단축	21.9	20.2	26.0
육아시간 지원	18.3	15.5	24.6
가족돌봄휴가	15.8	14.3	19.3

주: 1) 막내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만 0-8세 자녀를 둔 주 양육자를 대상으로 함.

2) 응답자 본인의 직장을 기준으로 해당 제도를 '소극적으로 활용', '충분히 활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의 합임.

출처: 육아정책연구소, "코로나19 육아분야 대응체계 점검: 어린이집유치원 휴원 장기화에 따른 자녀돌봄 현황 및 향후 과제", 「육아정책 Brief 81호」, 2020; 「코로나 대응 관련 부모 설문조사 1차」, 원자료, 2020. 3.

〈표 II-7〉을 보면 2020년 2월과 3월,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전후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직접 돌봄이 증가하고 부와 모가 함께 돌보는 비율도 증가하였으나, 모의 자녀돌봄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크고 모의 돌봄 참여가 부에 비해 약 3-4배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모의 양육 및 가사 분담을 10을 기준으로 질 문한 결과에서도 모:부의 양육 및 가사 분담이 각각 6.7:3.3, 6.5:3.5로 나타나, 모가 부모보다 2배 정도 돌봄을 더 많이 담당하는 성별 차이를 보였다.

〈표 II-7〉 팬데믹 선언 전후 가정내 자녀돌봄 변화, 2020.3 (%)

구분	코로나 전-후 시점	부모 직접 돌봄	아버지가 주로 돌봄	어머님이 주로 돌봄	부모 함께 돌봄	조부모/친인척 돌봄
영아 자녀	전	33.2	3.6	29.2	7.9	18.6
	후	39.5	7.5	36.8	12.3	20.9
유아 자녀	전	15.0	1.4	13.6	4.3	6.4
	후	38.2	10.0	29.6	15.0	26.4
초등 자녀	전	24.4	5.0	20.1	4.3	12.6
	후	44.7	7.0	35.2	7.7	20.3

주: 1) 막내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영아는 만 0-2세, 유아는 만 3-5세, 초등자녀는 만 6-8세(초등 1-3학년)임.

출처: 육아정책연구소, "코로나19 육아분야 대응체계 점검: 어린이집유치원 휴원 장기화에 따른 자녀돌봄 현황 및 향후 과제", 「육아정책 Brief 81호」, 2020; 「코로나 대응 관련 부모 설문조사 1차」, 원자료, 2020. 3.

어린이집 긴급보육 이용

2020년 「어린이집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51.2%는 긴급보육을 전혀 이용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고, 48.8%가 긴급보육을 이용하였다. 어린이집 긴급보육 이용률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에 따라 2월 10.0%, 3월 28.4%, 4월 55.1%, 그리고 5월 72.7%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보건복지부, 2020. 5. 9.).

연령별로 0세 영아의 어린이집 긴급보육 이용률이 30%로 가장 낮았고, 2세, 3세, 5세 아동은

50% 이상이 긴급보육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의 취업 여부에 따라 이용률이 다른데, 비 취업모가 상대적으로 긴급보육을 이용하지 않은 비율이 높았다. 취업모 중 재택근무를 한 경우 긴급보육을 더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재택 근무가 자녀를 돌보면서 집에서 일하는 지원의 형태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코로나19로 인한 아동돌봄가구의 변화

코로나19는 여러 차원에서 가족의 변화를 초래하였는데, 소득 및 지출의 경제적 변화, 근로 및 여가 등의 시간사용 변화, 가족관계의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 <표 II-8>의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대상의 조사에서는 가구소득 및 부/모의 근로소득과 근로시간은 대체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소득 감소에 대한 체감이 크고, 특별재난지역의 가구에서 경제활동 상태가 나빠졌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전반적으로 집 안에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는 응답은 85.5%이고, 자녀와 보내는 시간 및 TV/미디어 이용 시간이 늘어났다는 응답은 각각 72.2%, 77.8%, 대면 접촉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응답은 79.5%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자녀 관계가 좋아졌다는 응답은 39.7%, 부부 관계가 좋아졌다는 응답은 20.9%로 나타났다. 반면 부모-자녀 관계가 나빠졌다는 응답은 6.6%, 부부 관계가 나빠졌다는 응답은 10.3%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한 휴원·휴업 기간 동안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의 가족 관계에는 긍정과 부정의 경험이 공존하는 가운데 긍정적인 영향이 좀 더 많았다.

<표 II-8> 코로나19로 인한 아동돌봄가구의 변화, 2020.3

	응답률(%)		평균 (점)	
	줄어들 /나빠짐	늘어남 /좋아짐		
경제적 변화	가구소득	32.1	5.1	2.61
	부 근로소득	25.5	4.8	2.70
	모 근로소득	19.7	4.6	2.71
	가구지출	28.7	36.3	3.12
	자녀양육비 지출	30.3	29.8	3.01
시간 사용 변화	부 근로시간	19.9	9.0	2.85
	모 근로시간	19.0	7.4	2.78
	자녀와 보내는 시간	5.3	72.2	4.07
	집안에 있는 시간	3.2	85.5	4.46
	TV/미디어 이용시간	3.4	77.8	4.18
관계 변화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시간	79.5	6.9	1.64
	자녀와의 관계	6.6	39.7	3.45
	부부 관계	10.3	20.9	3.15

주: 1) 막내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만 0-8세 자녀를 둔 주 양육자를 대상으로 함.

2) 2월 대비 3월의 변화에 대하여 '상당히 줄어듦/나빠짐'부터 '상당히 늘어남/좋아짐'까지 5점 척도로 조사하였음.

출처: 육아정책연구소, 「코로나19 육아분야 대응체계 점검 및 돌봄공백 지원 방안 연구」, 2020.; 육아정책연구소, 「코로나 대응 관련 부모 설문조사 1차, 원자료, 2020. 3.

코로나19로 인한 아동돌봄가구의 어려움

코로나19로 인한 아동돌봄가구의 어려움(3가지 중복응답)은 <표 II-9>에서 파악할 수 있다. 먼저 1순위로 응답한 어려움은 '가계소득의 변화' 18.6%, '사회적 교류와 바깥활동의 제약' 12.0%,



‘자녀돌봄공백의 발생’ 11.7%, ‘모의 직장생활 유지’ 11.5%, ‘자녀양육비 증가’ 11.2%, ‘자녀양육의 전반적인 어려움’ 10.9%, ‘부의 직장생활 유지’ 7.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활동 제약 외에도 가계상황 악화(소득 감소와 양육비 증가), 일과 자녀돌봄 양립의 어려움이 주를 이룬다.

3가지의 응답을 종합하면 아동돌봄가구의 어려움을 느끼는 순위가 바뀌는데, ‘사회적 교류와 바깥활동의 제약’(42.1%), ‘자녀양육이 가져오는 전반의 어려움’(36.4%)을 꼽은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다음으로 ‘불안/우울/스트레스’(30.7%), ‘가계소득의 변화’(30.7%), ‘자녀양육비 증가’(29.2%), ‘자녀돌봄공백의 발생’(28.4%), ‘감염 예방과 위생관리’(27.8%), ‘부의 직장생활 유지’(19.2%), ‘모의 직장생활 유지’(17.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돌봄가구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경험하는 어려움은 돌봄공백에 국한되지 않으며, 고용·노동 및 소득의 변화와 사회활동의 제약, 불안/우울 등 정신건강 상의 어려움, 직장생활 유지의 어려움을 함께 경험하고 있다.

맞벌이가구는 가계수입의 변화와 모의 직장생활 유지, 자녀돌봄공백의 발생에 대한 어려움을 지적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외벌이가구는 전반적인 자녀양육의 어려움, 자녀양육비 증가, 사회적 교류와 바깥활동 제약의 어려움이 좀 더 많았다. 이로써 맞벌이가구의 경우 일-가정양립의 어려움과 돌봄공백에 대한 대응이 우

선 과제로 해석되며, 외벌이가구는 늘어난 가정 내 돌봄으로 인한 부담과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원격수업 등 자녀교육 지원의 어려움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표 II-9〉 코로나19로 인한 자녀돌봄가구의 어려움, 2020.7

	1순위 응답 (%)	1-3순위 다중 응답 (%)
사회적 교류/바깥활동 제약	12.0	42.1
자녀 양육 전반	10.9	36.4
가계 수입 변화	18.6	30.7
불안/우울/스트레스	4.9	30.7
자녀 양육비 증가	11.2	29.2
자녀 돌봄 공백 발생	11.7	28.4
감염예방/위생관리	5.7	27.8
부의 직장생활 유지(출근/근무)	7.7	19.2
모의 직장생활 유지(출근/근무)	11.5	17.2
아동용 마스크 구입	2.6	15.5
자녀 마스크 착용/관리	2.0	12.6
감염 관련 직접 경험	1.1	9.7

주: 1) 막내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만 0-8세 자녀를 둔 주 양육자를 대상으로 함.

2) 통계치는 코로나로 인해 경험한 가장 큰 어려움으로 1순위로 꼽은 응답 비율 및 1-3순위 내에 응답한 비율의 합임.

출처: 육아정책연구소, 「코로나19 육아분야 대응체계 점검 및 돌봄공백 지원 방안 연구」, 2020.

부모-아동의 정신건강

코로나19로 인해 부모와 아동의 우울과 불안, 스트레스가 증가했는지 질문한 결과, 〈표 II-10〉에서와 같이 나타났다. 자녀의 경우는 연령이 많을수록 우울/불안/스트레스의 부정적 정서를 좀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즉 우울/불

안/스트레스가 증가했다는 응답이 영아자녀는 33.0%, 유아자녀는 39.7%, 초등자녀는 46.4%였다. 부모의 경우는 우울/불안/스트레스가 증가했다는 응답이 부 51.0%, 모 59.6%로 부와 모 모두 절반 이상이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였다. 특히 부모의 스트레스를 살펴보면 모의 경우 부에 비해 양육 스트레스가, 부의 경우 모에 비해 업무 스트레스가 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0〉 코로나19로 인한 불안/우울/스트레스, 2020.7

	전혀 증가 하지 않음	별로 증가 하지 않음	보통	약간 증가함	상당히 증가함	잘 모름/ 비해당
영아자녀	7.6	12.7	24.6	23.7	9.3	22.0
유아자녀	3.3	19.0	29.8	28.1	11.6	8.2
초등자녀	5.5	15.5	24.5	30.9	15.5	8.2
부	2.9	8.9	24.6	31.2	19.8	12.6
모	2.0	7.2	18.1	30.4	29.2	13.2

주: 1) 막내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만 0-8세 자녀를 둔 주 양육자를 대상으로 함.

2) 통계치는 2월 코로나 발발 전과 비교하여 6월 한달 동안의 변화에 대해 조사한 것임.

출처: 육아정책연구소, 「코로나19 육아분야 대응체계 점검 및 돌봄공백 지원 방안 연구」,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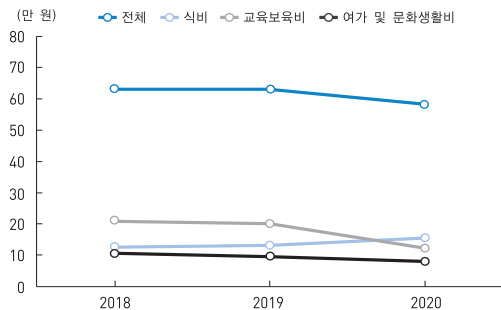
아동돌봄가구의 양육비 지출 변화

2020년 육아정책연구소의 「소비실태조사」에 따르면,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은 평균 58만 2,000원으로, 2019년에 비해 약 4만 8,000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목별로 교육보육비는 2019년 평균 20만 1,000원으로 양육비용 중 가

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나 2020년에는 12만 3,000원으로 양육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감소하였다. 여가·문화생활비의 경우 2018년 10만 9,000원, 2019년 9만 7,000원에서 2020년 8만 원으로 소폭 감소하였고, 식비는 2018년 13만 2,000원, 2019년 13만 4,000원에서 2020년 15만 6,000원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코로나19 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출의 규모와 항목 비중에서 변화가 일어났다.

영유아자녀 양육비용의 변화는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보육·교육 서비스 뿐 아니라 문화·체험활동의 서비스 이용이 어렵고, 자녀가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진 현상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II-18〉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변화, 2018-2020



주: 1) 양육비용은 소비자물가지수(2015=100)를 이용하여 2015년 기준 물가로 환산한 실질 비용임.

출처: 육아정책연구소, 「코로나19 전후, 영유아 육아 가구의 양육비용 변화」, 「육아정책 Brief 87호」, 2021.

한편 가구소득이 적을수록 코로나19 이후 자녀 양육비용의 부담이 가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표 II-11〉 가구소득별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변화, 2018-2020

가구소득	2018		2019		2020	
	영유아 1인당 양육 비용 (만 원)	가구 소득 대비 비율 (%)	영유아 1인당 양육 비용 (만 원)	가구 소득 대비 비율 (%)	영유아 1인당 양육 비용 (만 원)	가구 소득 대비 비율 (%)
전체	63.3	15.8	63.0	14.9	58.2	12.7
299만 원 이하	46.2	21.6	51.8	23.9	48.3	26.7
300-399만 원 이하	54.3	15.4	52.8	15.1	50.3	14.1
400-499만 원 이하	68.2	15.0	63.2	14.1	52.1	11.6
500-599만 원 이하	70.7	12.7	70.1	12.8	62.9	11.5
600만 원 이상	92.5	11.8	83.8	10.8	73.4	9.8

주: 1) 양육비용은 소비자물가지수(2015=100)를 이용하여 2015년 기준 물가로 환산한 실질 비용임.

출처: 육아정책연구소, 「코로나19 전후, 영유아 육아 가구의 양육비용 변화」, 「육아정책 Brief 87호」, 2021.

〈표 II-11〉에서 전체 가구소득 구간에서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은 2019년보다 감소하였으나,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감소폭이 큰 경향을 보였다. 양육비용의 감소가 주로 교육보육비의 감소에 따른 것과 연관된 결과로, 가구소득 대비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의 비율은 가구소득 수준이 낮은 경우(299만 원 이하)에 증가하여 26.7%에 달한다. 반면, 가구소득 600만 원 이상인 경우 가구소득 대비 영유아 1인당 양육비

용 비중이 2019년 10.8%에서 2020년 9.8%로 1%p 감소하는 데 그쳤다. 코로나19 이후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상황이 보다 취약함을 보여준다.

맺음말

코로나19 감염위험에 대한 대응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행되면서 가정내 돌봄이 증가하고 취업부모를 중심으로 자녀돌봄공백이 나타났다.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고 가정의 역할과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아동돌봄가구의 물리적, 사회경제적, 심리정서적 어려움이 일-생활의 균형을 저해하지 않도록 아동돌봄의 개별맞춤과 공적돌봄체계의 대응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재난상황에서의 아동돌봄지원체계는 기존의 아동돌봄지원체계의 확장과 연계의 강화, 긴급돌봄체계의 운영기준 정비, 재난상황에서의 서비스 운영의 연계와 전이, 보건의료/사회복지지원체계와 교육/보육/돌봄 서비스의 연계를 강화하는 포괄적인 아동돌봄서비스의 가동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보건복지부. 2020. 5.29. 「어린이집 휴원 해제 계획」, 보도참고자료.

